

## 【아키타현】 아키타견의 고향으로 아키타견을 만나러 오세요

쫘긋 선 세모난 귀와 둥글게 말린 꼬리가 특징인 아키타견(아키타이누). 영화의 모델이 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견종이지만, 여러분들은 아키타견의 발상지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키타견의 발상지는 이름에 있는 그대로, 일본의 혼슈 북부에 있는 현, ‘아키타’입니다.



아키타현에서는 아키타견을 통해 고향 아키타를 알리기 위해, 올가을부터 아키타견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도쿄 도내에서는 ‘아키타견이 고향, 아키타를 소개합니다’를 주제로 프로모션을 합니다. 11 월에는 도쿄메트로 신주쿠역에 대형 포스터를 게시하며, 1 월에는 ‘아키타견 전철’이 JR 야마노테선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프로모션에 앞서 도쿄 스카이트리 타운 ‘도쿄 소라마치’ (10/22~23) 나 JR 시부야 하치공 앞 광장 (11/5~6) 에서 개최되는 각종 이벤트에는 아키타의 관광지나 식재료, 일본주 소개는 물론, 아키타견이 손님을 맞이하며 아키타를 PR 합니다.

또한, 아키타견의 고향인 아키타현 오다테시의 현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오다테노시로공항에서는 하치공과 관련하여 일본어로 하치(8 을 의미)가 붙는 날(매달 8 일, 18 일, 28 일)에 아침 첫 비행기 도착에 맞추어 아키타견이 탑승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애견가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9 월에는 동물 전문 사진가를 초빙하여 사진교실을 개최하였습니다. 도그런에서 뛰노는 아키타견을 모델로 한 사진 촬영회에는 많은 애견가들이 모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아키타견 월드 포토 콘테스트’는 10/1~1/13 까지 아키타견의 매력을 전하는 사진을 일본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모집합니다. 2~3 월에는 수상작품을 아키타현 내에서 순회 전시하며, 전 세계에서 모인 아키타견의 매력적인 모습을 고향 아키타에서 발신합니다.

지금은 해외에도 아키타견과 애견가가 존재하므로 아키타견의 역사나 전통적인 체형을 계승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다테시에는 1978 년 개관한 아키타견회관에 더하여, 2018 년 경까지 아키타견 자료관(하치코 뮤지엄)이나 도그런, 진짜 아키타견과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정비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아키타견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더 높이는 것에 주력해가고자 합니다.



‘아키타견’ 로고 마크 아키타의 보물인 ‘어린이’와 ‘아키타견’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것을 ‘AKITA’의 ‘A’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키타현에서 아키타견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은 아키타견보존회의 본부가 있는 아키타견회관, 일본에서 가장 깊은 호수인 다자와호 호반의 휴게소인 다자와호 공영팰리스(센보쿠시 다자와호)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로컬 철도의 랩핑열차나 버스 등, 아키타견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키타현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던 것은 ‘오가의 나마하계’로 대표되는 풍부한 민속문화나, 아키타 오리지널 품종 쌀인 ‘아키타코마치’, 쌀로 만든 향토요리 ‘기리탄포’나 ‘일본주’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계기로 ‘아키타견이라고 하면 아키타현’, ‘아키타현이라고 하면 아키타견’을 바로 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참조사이트

- 공익사단법인 아키타견 보존회  
(<http://www.akitainu-hozonkai.com/index.html>)
- 아키타현 한국어 공식 사이트  
(<http://akita.or.kr/>)
- 오다테 노시로 공항 이용촉진협의회  
(<http://www.odate-noshiro-airport.com/korean/korean.html>)
- 아키타견 월드포토콘테스트  
([http://www.e-midori.co.jp/akita\\_dog\\_photo/world\\_akita\\_dog\\_photo.html](http://www.e-midori.co.jp/akita_dog_photo/world_akita_dog_photo.html))

■담당 과

아키타현 관광문화스포츠부 관광전략과

전화 : 018-860-1462

팩스 : 018-860-3879